

공존에서 단절과 분리의 관계로

— 집단 감정과 다자관계, 그리고 현대 중동의 종파주의
[서평] 이은정(2019), 『오스만 제국 시대의 무슬림-기독교인 관계』,
민음사, 243쪽.

하 현 정*

1. 머리말

이 책은 저자의 경험에 바탕을 둔 흥미로운 질문으로 시작한다. 무슬림 세속주의자 지식인들은 신앙심이 깊지 않으면서도 이슬람 정체성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까? 그들은 왜 그토록 기독교 선교나 이슬람에 대한 모독에 예민하게 반응할까? 그들에게 이슬람 정체성은 어떤 의미일까? 무슬림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자는 오스만 제국의 초창기인 11세기부터 멸망에 이르는 1922년까지 900여 년에 걸친 오스만 제국사에 주목한다. 긴 오스만 역사 전체를 아우르지만, 이 책은 제목에 충실하게 무슬림-기독교인 관계에 천착하여 관련 정치, 사회, 경제적 사건들을 중심으로 오스만의 무슬림들과 기독교인들의 공존에서 단절과 분리의 관계로 변모하는 과정에 집중한다.

* 듀크 쿤산대학(Duke Kunshan University) 사회학 조교수

대부분 중동 지역은 종교, 종족, 인종적 구성이 다양하지만,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은 중동을 동질적인 지역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 이러한 인식은 내가 만나는 학부생들에게서도 발견된다. 나는 매 학기 첫 수업 시간에 중동 지역에 관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인상이나 이미지를 적어볼 것을 주문하는데, 학생들은 ‘석유 자원’, ‘분쟁 지역’, ‘전쟁’과 같은 단어들을 비롯해 ‘이슬람’이라는 단어를 빼놓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아무도 이제까지 그 외의 종교나 종족적 다양성에 관해 서술한 적이 없었다. 대학의 강의실을 넘어, 중동 지역 연구자들의 출판물 역시 종교, 정치, 문화로서의 이슬람 혹은 행위자로서 무슬림을 연구의 중심에 두기에,¹⁾ 우리는 상대적으로 중동 지역에 무슬림이 아닌 다른 인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연구자들은 왜 중동의 비무슬림에 관한 연구를 꺼리는 것일까? 저자는 ‘들어가는 말’에서 관련 연구를 인용하여 이 질문을 제시하는데, 그 이유는 비무슬림, 특히 중동의 기독교인들에 관한 연구는 매우 예민한 정치적인 행위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동은 서구 열강의 정치, 경제적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해 온 지역으로 오랫동안, 그리고 현재까지도, 열강의 각축장이 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중동 지역의 기독교 공동체를 연구하는 것은 특정 서구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오스만 제국 시기의 무슬림-기독교인 관계』는 무슬림과 기독교인 집단 양쪽을 두루 살피면서 동시에 오스만 제국사를 중

1) 이슬람과 무슬림을 중심에 둔 연구의 규모는 방대하지만, 그중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무슬림 여성의 정체성과 이에 대한 탈식민주의적 비판에 관해서는 Abu-Lughod (2015)의 최신 저서인 *Do Muslim Women Need Saving?* 을 참고할 것 (같은 제목의 학술지 논문은 2002년에 출판되었다). 신앙심 깊은 무슬림 여성들이 종교적으로 동원되는 방식과 자율성(autonomy)에 관한 새로운 해석을 위해서는 Mahmood (2005), 호스니 무바라크 시기 이슬람 사원의 설교하기와 설교 듣기 행위에 관한 인류학적 분석을 위해서는 Hirschkind (2006)를 참고할 것.

교 집단 간 관계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또한, 이 두 집단의 관계가 공존에서 분리 혹은 반목의 관계로 전환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저자는 무슬림들이 기독교 집단에 대해 불안과 좌절 등의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을 자세히 설명한다. 종교 집단 간 관계 연구에서 이러한 접근은 오늘날 국경 없이 퍼져나가는 전염병처럼 이슬람에 대한 혐오(Islamophobia)에 대해서도 인식론적 전환을 요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시에 한편으로 혹자가 오늘날 중동의 기독교인들을 종파주의 차별과 폭력의 무기력한 피해자로만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들에 대한 이해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책은 어쩌면 많은 이들이 가지고 있을 각각의 집단에 대한 오해와 복잡한 현실 간 틈을 메울 수 있는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저자는 연구 초기에 17세기 오스만 사회의 길드 조직을 연구해왔고, 단행본과 학술지 논문, 역서 등 많은 중요하고 의미 있는 글을 출판했다. 최근 저자의 연구 관심은 저자가 출판한 여러 권의 논문이 증명하듯 오스만 제국의 17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는 시기에 무슬림들과 기독교인 집단으로 전환되었음을 증명한다. 17세기 기독교인들이 대거 이스탄불로 이주하면서 일으킨 무슬림들과의 사회적 긴장과 갈등의 문제(2015), 오스만 제국의 예니체리(구식군대)가 무슬림 정체성을 기반에 둔 조직이라는 선입견을 해체하면서 오스만 정부가 비무슬림들의 군사력을 동원하고 이용한 방식(2018), 그리고 19세기 후반 서구 열강의 오스만 제국에 대한 경제 개입과 기독교인들의 경제적 번영에 대한 무슬림들의 집단 감정의 형성과 부상(2016)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 논문들은 저자가 어떠한 질문과 고민을 거쳐 이 개론서를 집필하게 되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 서평의 다음 장에서는 책의 요약과 무슬림-기독교인 간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 핵심이 되는 중요한 쟁점들을 제시하고 논의하고자 한다.²⁾

2. 본서의 문제의식과 구성

이 책은 긴 호흡에서 보면 11세기 오스만 제국의 지리적 특성과 변방의 정체성에 관한 논의를 시작으로, 오스만 제국이 순니 무슬림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법 제도를 세우고 영토를 확장해나가는 15세기 중반에서 16세기 사이의 고전 시대를 거쳐, 17세기 이후 분권화 과정에서 점차 세가 약화하여 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본서의 내용을 더 가까이 살펴보기 위해 옮겨온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 오스만 국가의 초창기

더 살펴보기 / 변방의 영웅 서사시

2장 고전 시대(1450~1550년대)

더 살펴보기 / 이베리아 유대인의 오스만 제국 이주

3장 분권화의 시대(17~18세기)

더 살펴보기 / 카드자텔리 운동

4장 동방 문제의 대두

더 살펴보기 / 퀴쾅 카이나르자 조약

5장 탄지마트의 국가 개조

더 살펴보기 / 탄지마트 시대의 개혁 관료

6장 압뮐하미드 시기의 무슬림 내셔널리즘

더 살펴보기 / 선교사들의 관점 헨리 해리스 제섭

-
- 2) 미리 언급하고 싶은 지점은, 나는 역사학자가 아니라 사회학자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관점이 일반적인 역사학 서평의 관점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나는 무슬림-기독교인 관계를 연구하지만, 오스만 제국이 아닌 현대 이집트를 배경으로 하므로 오스만 제국사에 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평을 쓰게 되었다. 나로서는 저자의 최근 저서를 집중해서 읽고 내 생각을 정리해보는 기회였기에 서평을 쓰는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나, 분과별 관점 차이로 인해, 혹은 나의 부족한 역사학 지식으로 인해 역사학자 독자들이 기대하는 부분을 논의에서 발전시키지 못해서 본서의 강점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 걱정이 앞선다.

7장 20세기 초 청년 투르크 집권기

더 살펴보기 /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와 종교

1장은 오스만 국가가 태동한 11세기부터 초창기인 14세기 사이에 무슬림과 비무슬림 간의 관계가 형성된 배경과 그에 따른 긴장 관계를 다룬다. 이 장에서 저자는 오스만 제국의 지리적 요충지였던 아나톨리아와 발칸반도는 통치자의 정통성이 결여되어 있고, 다양한 종교 문화가 혼합된 지역이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저자는 바로 이러한 특성이 투르크계 무슬림들이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정치·군사영역에서 수용하고 포섭할 수 있었다고 서술한다. 이 시기에는 수피 무슬림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개종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고, ‘데브시르메’라고 불리는 14세기 소년 공납 제도(기독교인 소년들을 군사 인력으로 편입시키는 제도)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저자는 동시에 종교적 절충주의를 낭만화하는 시각을 경계하면서, 기독교인들은 무슬림 사회로부터 그들의 충성도에 대해 잠재적으로 지속적인 의심과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한다. 변방의 무슬림 전사들이 기독교인들을 노예로 팔았고, 전사들과 일반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잦은 싸움과 약탈이 있었다는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오스만 제국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면서 생존과 안전을 위협받았다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2장은 오스만 제국의 전성기라 불리는 고전 시대인 15세기 중엽에서 16세기 중엽까지의 기간에 정치 사회적 상황과 비무슬림들이 처한 위치를 살펴본다. 이 시기 오스만 제국은 유럽보다 우위에 있었다. 세속법 카눈(kanun)을 기반에 둔 술탄 중심의 중앙 집권 제도가 세워졌고, 정복을 통한 영토 팽창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고전 시대에 오스만 제국은 여전히 다양한 기독교 종파(정교회, 아르메니아 교회)와 유대인 집단들에 대해 종교적 실용주의 노선을 택하고 있었지만, 아라비아반도의 메카와 메

디나가 영토로 편입되면서 오스만 제국은 순니 이슬람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이슬람법인 샤리아에 입각한 종교정책이 마련되었는데, 이는 비이슬람과 비순니 교리, 그리고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불관용 정책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샤리아에 입각한 종교정책이란 비무슬림들이 종교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무슬림과는 차별적으로 대우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비무슬림들(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은 ‘지즈예’라는 추가 세금을 내야 했고, 사회 활동에서도 무장과 승마를 할 수 없었고, 입을 수 있는 의복의 재질이나 색깔도 제한되었다. 이는 밀레트(millet: ‘종교 공동체’라는 의미) 제도와 담마(비무슬림과 국가 간 계약 관계), 담미(이러한 계약 관계 하에 있는 비무슬림)의 개념으로 설명된다. 즉, 밀레트 제도하에 종교의 자유는 보장을 받았지만, 사회적으로 무슬림들과 동일한 신분을 갖지는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비무슬림들은 비교적 자유로운 집단 내부 질서를 가지고 있었고, 그 위계질서가 엄격히 잡혀 있지는 않았다. 물론 오스만 제국의 영토가 워낙 방대하여 지역에 따라 혹은 사회적 지위에 따라 비무슬림들이 누린 자율성의 정도는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3장은 17~18세기에 오스만 제국이 국내외적으로 겪었던 분권화의 과정에 집중하여 비무슬림들이 겪었던 사회적 위치 변화에 집중한다. 내부에서는 왕위 계승과 관련하여 정치적 불안정이 깊어지고, 대외적으로는 군사비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군사 조직을 개편하게 되었다. 파직된 기병들이 지방에서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치안이 붕괴되면서, 무장이 허용되지 않았던 기독교인들은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기독교인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도시로 이주하기 시작하는데, 대규모의 기독교인들이 이스탄불과 같은 대도시에 정착하자 무슬림들이 위협을 느꼈고, 기존의 기독교인 집단 역시 새로운 기독교인들과 갈등을 겪게 되었다. 주로 교회의 세금 징수 관할권이 문제였다. 상황이

혼란스러워지면서 무슬림들 사이에서 카드자델리 운동(Kadıızadeli: 경건주의 종교운동)이 일어났고, 비무슬림들에 대한 억압은 점차 심해졌다.

17세기에는 기독교인들의 부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기독교인들의 인구가 증가했고, 상당수 기독교인들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입지를 확보했다. 그 예가 그리스인 파나리오트(명문가 계보를 가진 기독교인 엘리트 집단)인데, 그들은 주로 상업과 의료업, 서유럽 언어 구사 능력 등으로 무슬림들에게 위협이 되기 시작했다. 일부 기독교 집단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입지를 확보하는 상황에 대해, 저자는 17~18세기 분권화된 사회 구조 속에서 기독교 엘리트들과 일반 기독교 신민 간 지위와 영향력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었음을 지적한다. 일반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일종의 이등 시민으로서 자리했지만, 오스만 기독교인 중 일부는 교회, 상업 금융계, 지방 군사영역에서 엘리트로 성장하면서 고전 시대보다 제국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

4장은 ‘긴 19세기’라고도 불리는 이 시기에 일어난 거대한 변화를 다룬다. 러시아와 맺은 패전조약인 쿠크치 카이나르자 조약(1774)을 시작으로 오스만 제국은 개혁정책과 사회 갈등, 발칸 국가들의 분리 독립, 1차 세계 대전과 제국의 멸망(1922), 독립 전쟁과 공화국 수립(1923) 등 일련의 큰 사건들이 경험했다. 이 시기가 “복잡하고도 고통스러운 사회 변화의 시대였던”만큼(p. 73), 무슬림-비무슬림 관계에서 갈등은 더 심화하였다.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전한 시기를 기점으로 오스만 제국은 화려했던 역사의 하향길로 접어들었다. 발칸 지역에서 민족주의 정신의 고취에 이어 나폴레옹의 이집트 점령(1798)은 오스만 제국에 위기로 다가왔다. 셀림 3세는 군대 개혁을 이루고자 했으나 재정 부족으로 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그의 개혁 의지는 오히려 구식 군대인 예니체리를 자극하였고, 결국 군사정변으로 폐위된 후 살해당했다. 이 비극에 대해 저자는 구체제 유지파와 개혁파 사이의 갈등이 첨예했음을 지적한다. 셀림 3세의 뒤를 이은 마흐무드 2세는 광범위한 근대화 개혁을 이루어냈는데 그 중 주

목할 만한 것은 예니체리를 완전히 제거하고, 신식 교육 기관을 세우고 복장 개혁을 단행한 것이다.

이 시기 발칸에서는 예니체리들의 착취와 수탈에 반발하여 세르비아인들의 반란(1804)이 일어나 세르비아가 자치 지역이 되었고, 이어서 발생한 그리스 독립전쟁(1821~1829)으로 그리스 역시 자치 지역이 되었다. 이 사건은 오스만 무슬림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 배신감과 공포감이 한층 더 깊어진 계기가 되었는데, 이는 전쟁에 가담한 비무슬림 지식인들이 국가의 서구화를 요구했고, 농민들은 중과세에 반발했다. 이러한 상황은 종교에 바탕을 둔 집단 정서를 강화해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앞친 데 덮친 격으로 오스만 정부와 이집트 총독이었던 메흐메드 알리³⁾와의 내전은 오스만 제국을 더 깊은 위기에 빠지게 했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아안(지방 군벌) 가운데 가장 굳건한 입지를 굳힌 메흐메드 알리는 이집트 총독으로 임명이 되었고, 이후 세력 범위를 빠른 속도로 확장해 나갔다.

러시아와의 전쟁과 지방에서 일어난 반란 등으로 영토와 인구를 상실해가던 오스만 제국은 서구식 법과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대대적인 탄지마트(1839년에서 1839년 사이에 일어난 중앙 집권화 개혁)를 단행했다. 저자는 5장에서 탄지마트에 관한 연구의 새로운 동향을 소개하면서, 이 개혁을 세속주의적 관점으로 조망했던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최근의 연구들은 전반적인 개혁의 밑바탕에 있는 종교적 정체성에 관심을 둔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러한 주장은 저자가 4장에서 서술한 오스만 제국의 위기, 예컨대 술탄 마흐무드 2세가 그리스 독립 전쟁과 수차레의 러시아 전쟁, 그리고 메흐메드 알리의 침공으로 인한 이집트 위기, 등을 겪으면서 점차 술탄과 무슬림들이 이슬람적 정체성에 무게를 둔 국가관을

3) 메흐메드 알리의 이집트 근대화를 위한 개혁에 관해서는 저자(2016)가 번역한 칼레드 파흐미의 『메흐메드 알리: 오스만 제국의 지방 총독에서 이집트의 통치자로』를 참고할 것.

형성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갖는다. 이 시기는 국가가 투르크계 무슬림들을 신임하는 가운데, 점차 기독교인들을 불신의 대상으로 보는 흐름이 형성되는 시기였다.

마흐무드 2세가 개혁을 이루는 데 있어 이슬람적 정체성에 기반을 두기는 했지만, 그는 열강 세력으로 떠오른 유럽 국가들과도 서구화를 통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있었다. 오스만 제국은 탄지마트 개혁을 통해 국가 주도적으로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제공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변모해 갔다. 징병제 도입, 관료제 합리화에 따른 인력 증대, 국가 주도의 교육, 보건 위생 관리, 신식 학교, 전염병 환자 격리 수용소 등의 개혁이 시행되었다. 법의 영역에서도 샤리아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세속 법정을 설립하는 등 유럽의 법률 체제 도입했다. 하지만 이러한 근대화 개혁을 단행하면서도 술탄은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고, 프랑스 혁명의 기본 정신인 시민에 대한 자유와 입헌주의 등에 관한 고려는 없었다는 특징을 보인다.

유럽이 열강 세력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오스만 내 외국 대사 및 영사들의 영향력이 증대되었고, 이에 따라 오스만 기독교인들의 사회적 지위 역시 변화했다. 기독교인들은 열강의 외교관들에게 오스만 정부가 해결 해주지 않는 민원 문제를 호소했고, 이로 인해 무슬림들과 정서적 격차가 벌어졌다. 또한, 이 시기에 시작된 오스만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개신교 선교는 무슬림과 기독교인 간 관계를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7세기부터 있었던 가톨릭 선교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 개신교 선교는 개인의 종교관 변화를 유도하고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스만 기독교인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했고, 개종자의 수도 적었다. 유럽 외교관들은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했는데, 특히 영국 대사는 오스만 내에서 영국을 지지하는 세력을 형성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1850년에 이르러 개신교가 새로운 밀레트로 인정을 받았는데, 이러한 결정에는 영국 대사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무슬림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

탄지마트가 이슬람 정체성을 기반으로 진행되었다고는 하지만, 마흐무드 2세가 추진한 신식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엘리트들은 종교적 전통을 고수하는 것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 1856년에 발표된 새로운 개혁안은 종교, 인종, 언어에 대한 차별을 전반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유럽인들과 국내 기독교인들은 이 조항을 반겼지만, 일반 무슬림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이 개혁안은 무슬림들에게 기독교인들이 이스탄불을 빼앗을 수도 있다는 공포를 가져다주었고, 실제로 레바논과 다마스쿠스 등의 지역에서 무슬림들의 반란이 일어났다. 이러한 상황은 저자가 한 문장으로 잘 표현했듯 “(오스만 무슬림들에게) 열강은 개혁의 모델인 동시에 최대 장애물이었다”(p.116). 술탄은 30년간 개혁 과정에서 정권 교체와 헌정 수립을 통해 오스만 제국을 새롭게 정비하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6장은 압딜하미드 시기에 주목하면서 무슬림 내셔널리즘이 태동한 시기를 조명한다. 오스만 제국은 1876년 유럽 열강의 압력에 의해 최초의 헌법을 제정했는데, 열강의 압력은 오스만 기독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헌법은 모든 신민에 대한 평등사상을 반영했고, 종교에 따라 해당 종교 출신 의원을 선발해서 의회 소집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외 정세는 오스만 제국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았는데, 오스만과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무슬림들이 학살을 당한 사건(1877~1878년)은 오스만 제국의 존립에 위협이 되었다. 전쟁으로 인한 영토 상실에 더해 1881년 프랑스의 튀니지 점령과 1882년 영국의 이집트 점령 역시 점차 오스만 제국을 위협했다.

오스만 제국은 1876년 4월 완전 파산을 선언하면서 경제적 측면에서도 시련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무슬림들은 큰 충격을 받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불만과 적대감을 품을 수밖에 없던 이유는 국가의 파산 상황을 수습하는 공채관리국이 외국인 채

권자들과 오스만 기독교인들에 의해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 오스만에서 상업은 대부분 중산층 기독교인들에 의해 유지되고 있었던 반면, 무슬림들은 대체로 군사영역이나 관료직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슬림들 사이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오스만 제국의 경제를 지배하고 있다는 불만이 높아졌다. 또 다른 원인은 개신교 선교사들이 세운 미션 스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면서 기독교인 학생들뿐만 아니라 무슬림 학생들도 함께 교육을 받게 되었다. 신식 학교로는 거의 유일한 선택지였기 때문에 무슬림 엘리트들은 미션 스쿨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기독교인들의 근대성에 열등감을 느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아나톨리아 지역에서는 아르메니아인들과 무슬림들 사이에서 토지 사유화 문제를 놓고 분쟁이 일어났고, 열강의 개입으로 아르메니아인들의 상황이 악화하였다. 이 갈등은 점차 심화되어 수만 명으 아르메니아인들이 학살당하는 사건으로 이어졌고, 아르메니아인들과 쿠르드 집단 간 분쟁에 오스만 제국 은행의 총재인 영국인이 개입하면서 무슬림들의 분노를 사게 되었다. 결국 수천 명에 이르는 아르메니아인들이 학살당하는 결과를 낳았다. 결과적으로 압뮐하미드 2세의 통치는 많은 영토와 인구를 상실하는 결과를 낳았고, 검열을 통한 억압적인 내부 통제 정책은 결국 1908년 청년 투르크 혁명에 의해 종식되었다.

마지막 장인 7장은 1908년부터 1922년까지 오스만 제국의 마지막 15여 년간의 역사를 담고 있다. 이 시기는 제국을 지키려고 했던 청년 투르크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여러 종교, 종족 집단들의 공존을 추구했던 오스만주의가 실패한 격변기로 볼 수 있다.

청년 투르크는 1889년 압뮐하미드 정권의 독재에 대항하여 결성된 비밀 결사로, 학생, 관료, 군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점조직으로 존재했다. 주로 무슬림으로 구성된 이 조직은 종교적 신앙을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무슬림들의 결속과 무슬림 민족주의를 표방했고, 비무슬림이나 비투르크인에 대해서는 오스만주의에 동의하는 한에서 포용하는 정책을

펼쳤다. 청년 투르크의 지도자들은 40% 이상이 발칸 남부지역 출신이었는데, 이 지역은 외국인과 오스만 기독교인들이 막강한 산업자본으로 부를 축적한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무슬림들의 소외가 심했던 지역이었다. 여러 차례의 시도 끝에 1908년 혁명에 성공한 청년 투르크의 앞날은 순탄치 않았는데, 여러 지역이 독립 혹은 통합 선언을 통해 오스만에서 분리되었고, 수차례의 전쟁도 겪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 투르크의 무슬림 민족주의는 점차 그 색이 짙어졌고, 자연스럽게 무슬림-기독교인 관계 역시 악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저자는 발칸 전쟁을 오스만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 결정적인 계기로 본다. 오스만군과 발칸 동맹군(그리스, 불가리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간 전쟁에서 오스만군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오스만군 내 비무슬림들이 전쟁 중에 대규모로 이탈한 사건으로 인해 기독교인들이 오스만군으로부터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후 1차 세계 대전으로 제국은 분할되고 멸망했다. 오스만의 경제는 파탄에 빠졌고, 이러한 상황은 군인과 민간인들에게 깊은 트라우마로 남았다. 청년 투르크는 빼앗긴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아르메니아인 조직에 협조를 구했으나 동맹을 맺지 못했고, 저자는 아르메니아인 대학살(1915)의 배경을 여기서 찾는다. 1918년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오스만 제국은 연합군에 수도를 점령당했다. 전쟁 영웅이라고 불린 무스타파 케말은 독립 전쟁(1920~1922)을 일으켰으나 이로 인해 무슬림-기독교인 관계는 더 악화하였다. 선전 문구에 지하드와 이슬람이라는 표현이 자주 쓰였고, 모든 전쟁은 무슬림과 기독교인 간 종교 전쟁으로 인식되었다.

3. 몇 가지 쟁점들

오스만 제국의 무슬림-기독교인 간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논의 지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논의점들은 독자들이 본서를 오스만 무슬림-기독교인 관계를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또한 이 분야의 향후 연구 주제로도 고려해볼 만하다.

- 1) 집단 감정에 기반을 둔 집단 간 관계 변화 이해
- 2) 오스만 무슬림-기독교인 관계 변화를 둘러싼 다양한 행위자들:
서구 열강과 개신교 선교사들, 그리고 집단 내 다양성
- 3) 오스만 제국의 무슬림-기독교인 관계에 기대어 현대 중동의 종파주의 이해하기

먼저, 집단 감정⁴⁾이라는 개념은 무슬림과 기독교인 관계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틀이다. 저자는 본서에서 시대적 상황 변화에 따라 무슬림들과 기독교인들이 느낀 다양한, 그러나 주로 부정적인, 감정에 주목하고, 이를 무슬림-기독교인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틀로 활용한다.

감정을 연구의 중심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회 내 개인 혹은 집단 간 권력 관계와 감정이 구조화되는 방식(feeling rules)⁵⁾을 이해하는 데에

4) 감정을 주 분석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최근 들어서야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감정은 이성과 달리 연구의 변인으로 이용하기에는 계량화하기가 어렵고, “과학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 사회과학 연구에서 크게 환영받지 못했다. 사회학에서는 1980년대부터 개인 혹은 집단의 감정을 통해 사회 구조를 읽어내는 작업이 시작되었는데, 특히 미국 사회학에서 목도된 감정 사회학 연구의 증가는 “감정으로의 전환”(emotional turn)이라고 불릴 만큼 사회학 연구에 있어 하나의 전환기를 기록하였다. 감정 사회학 연구자들은 논리/감정이라는 이분법을 해체하면서 감정의 사회적 성격과 이것이 사회 불평등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임을 역설했다.

5) 엘리 러셀 호실드(Arlie Russel Hochschild)는 ‘감정 규칙’(feeling rules)이라는 개념을

유용하다.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사회적 지위와 인종, 종교, 민족, 혹은 세대 등에 따라 다른 종류의 감정들을 공유하고, 그 차이가 면대면 상호작용을 통해 드러난다고 주장했는데(구기연, 2017; Brown, 2014; Collins, 2004; Ha, 2017; Wingfield, 2010),⁶⁾ 이러한 연구는 오스만의 무슬림들과 기독교인 집단 간 감정의 격차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이해를 뒷받침하며, 우리에게 개인이 느끼는 감정이 결코 개인적이고 즉흥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들이 위치한 사회적, 민족적 맥락에서 구성된다는 점을 상기시켜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오스만 무슬림들이 그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시대적 상황에 대해 비슷한 감정을 공유했을 것으로 상상할 수 있다. 오스만 무슬림들은 오스만 제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세(특히 러시아)와의 수차례에 걸친 전쟁으로 인한 영토 분할, 발칸반도에서 소수 민족의 독립, 그리고 오스만 기독교인들의 압력에 의한 서구 선교사들의

소개하면서, 사람들의 감정이 유용한 사회학적 연구 대상임을 증명했다(1983). 흑인 드는 사람들은 혼인이나 장례식 등의 의례를 치를 때 혹은 직무를 수행할 때 그들의 감정에 대해 특정한 사회적 기대를 받게 되는데, 그들은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사회적 “규칙”에 맞춰 감정을 표현하려고 노력한다고 주장했다. 개인과 사회적 관계에 집중할 이 미시사회학적 연구가 감정 사회학 연구의 초시였다면, 최근 들어서는 보다 큰 규모의 집단, 예컨대 인종, 종족, 종교 집단 간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감정을 연구하는 추세이다.

- 6) 예컨대, 미국에서 흑인 전문가 집단이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백인 동료들에 대해 느끼는 특정 감정을 ‘인종화된 감정 규칙’(racialized feeling rules)이라는 개념으로 개념화한 연구가 있고(Wingfield, 2010), 독일에서 학교 교육을 통해 독일의 시민 감정을 (나치 시대에 대한) 슬픔과 수치에서 민족적 자부심과 애국심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으로 새롭게 구성하는 방식에 관한 연구가 있다(Brown, 2014). 중동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연구 중에는 이란의 개혁적 성향의 도시 중상류층 젊은 세대들이 전통적 가치관에 대해 공유하는 사적 영역에서 표출하는 욕망과 저항이라는 감정을 연구한 구기연(2017)의 연구가 있고, 현대의 이집트 기독교인들이 집단 감정을 바탕으로 경계 긋기를 하는 일상을 분석한 논문 (Ha, 2017)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감정의 집단적 공유성과 사회적 구성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소수자 혹은 집단이 어떠한 방식으로 상징적 경계를 형성하는지 보여준다.

내정 개입 등으로 인해 자국의 기독교인들에 대해 불신과 좌절, 충격적인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감정들은 때로는 감정의 골이 서서히 깊어지는 방식으로, 때로는 큰 충격에 의한 트라우마로 자리 잡으며 두 집단의 거리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다.

집단 간 관계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집단 감정에 주목하는 것은 감정의 사회적 구성성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를 심층적으로 기술하는 “중층기술(thick description)”과 중층적 이해를 가능케 한다.⁷⁾ 역사적 맥락에서 사회, 정치 변화를 분석하는 것에 더해, 그에 대한 집단 내 감정을 기술하는 연구 방법과 글쓰기는 독자들로 하여금 오스만 제국의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컨대 나는 평자이자 독자로서 오스만 무슬림들과 기독교인들이 경험한 공존의 경험은 어떠했는지, 개종에 대해 각 집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더 나아가 공존에서 점차 멀어지는 상황 속에서 집단 간 관계는 어떻게 유기적으로 변화해 갔는지 흥미롭게 읽었다. 저자는 오스만 제국이 분권화 시기로 넘어가면서 무슬림들이 점차 느꼈을 박탈감과 위기감, 불안감 등에 집중했고, 그로 인해 오스만의 세속주의자 엘리트들이 이슬람 정체성을 왜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이러한 중층적 읽기는 많은 세대를 거쳐 가며 전달되었을 무슬림들의 박탈감과 좌절감을 현대의 무슬림들에 대입하여 생각해보게 했고, 세속주의자이면서도 왜 그토록 이슬람 정체성을 중시하고, 이에 도전하는 사건들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감정 분석을 통한 중층적 접근은 잠재적으로 인식론적 도전과 나아가 전환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 많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슬람 혹은 이슬람에 대한 인식은 아마도 특정 이미지에 갇혀 있을 것인데, 오스만 제국의 굴곡진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독

7) 클리포드 기어츠(Clifford Geertz)는 “중층기술(thick description)”이라는 용어를 통해 사람들의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맥락을 함께 읽어야 함을 주장했다(1973).

자들이 아마도 가지고 있을 무슬림들과 기독교인들에 대한 선입견을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에 대한 성찰을 가능케 할 것이다.⁸⁾

무슬림 집단의 감정을 단일한 하나의 것으로 규정하지 않고, 저자가 오스만 사회의 사정이 변화함에 따라 달라지는 집단 감정을 여실히 드러낸 것도 중요한 지점이다. 집단 감정을 연구하다 보면 특정 감정과 집단 자체를 동일시하는 뒤틀림에 걸리기 쉽다. 저자는 무슬림-기독교인 간 관계 변화를 서술하기 위해 오스만 제국사의 흐름에서 구체적인 사건들을 집어내고, 다양한 관련 정서들을 서술한다. 이러한 장점은 정체성을 하나의 고정된 특성으로 여기지 않고, 정체화(identification)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종족적 집단성(groupness)은 항상성을 갖지 않으며, 따라서 이는 하나의 변수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과 같은 맥락에 있다(Brubaker, 2004).

마지막으로, ‘기독교인들의 개종이 자율적으로 일어났던 오스만 제국에서 개종을 통해 무슬림이 된 이들은 어떠한 과정과 갈등, 노력을 통해 무슬림들의 집단 감정에 편입하였을까(아니면 하지 않았을까)’라는 호기심이 생긴다. 저자가 여러 차례 언급했듯, 오스만의 종교 집단은 닫힌 사회가 아니라 개종을 통해 종교 정체성을 바꿀 수 있었다. 특히 오스만 기독교인들의 경우 이슬람으로 자발적인 개종이 가능했고, 그 수를 가늠할 수는 없지만, 작지 않은 규모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독교인이

8) 개인적인 소회를 나누자면, 이 책을 읽으면서 나 역시 내가 얼마나 선입견에서 벗어나지 못했는가를 깨달았다. 현대 이집트의 무슬림-기독교인 관계를 연구하면서 접하게 된 이집트 근현대사를 통해 나는 기독교인들을 자연스럽게 피해야 위치에 놓고 있었다. 나세르 정권의 토지 개혁, 사다트 정권을 거침없이 비판했던 기독교 대주교에 대한 가택연금, 이어 무바라크 정권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살해, 교회 방화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해 무바라크는 한번도 이집트 내 종파주의적 갈등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현장 연구를 하는 연구자로서 나는 연구 주제와 대상에 관해 끊임없이 성찰했고, 연구 대상을 타자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자부했지만, 오스만 제국 시기 무슬림들의 감정선을 따라가는 것은 현대의 무슬림들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었다가 새롭게 무슬림이 된 이들은 무슬림으로서 집단 정서의 변환 과정이 있었을 텐데, 이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정체화하는 과정을 겪었는지를 밝히는 것은 흥미로운 작업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저자는 오스만의 무슬림과 기독교인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이원적인 구도에서 벗어나 기독교인들이 서구 열강과 선교사들, 그리고 오스만 기독교인들과 형성한 다자관계에 주목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유럽 국가들과 미국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오스만의 정치와 사회 문제에 개입했는지, 그리고 오스만의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권력과 어떻게 결탁하고 그것을 이용했는지 상세하게 서술한다.

종교 집단 간 관계를 이원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선악의 구도에 이 두 집단을 위치시키게 되는 경향이 있다. 어느 집단이 본래 악하고, 또는 어떤 집단이 피해를 봤는지에 집중하게 되고, 이는 종교 집단 관계에 대한 본질주의적 접근에 그치게 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그러한 위험을 배제하기 위해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상세히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이 굳이 어떤 편에 서도록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자의 중요한 기여 중 하나이다. 오스만 기독교인들이 소수자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서구 열강과 오스만 기독교인들이 공유했던 기독교 정체성과 정서적 친밀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둔 암묵적 결탁과 후원은 무슬림-기독교인 관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흥미롭고 중요한 지점이다.

유럽 정치인들의 입김이 오스만 제국에 작용하기 시작한 것은 오스만 제국의 초창기부터 쪽 관찰되는 특성은 아니다. 오스만 제국의 초창기에 유럽은 오스만 제국과 비교하면 오히려 권력 관계에 있어 열세에 놓였지만, 점차 열강으로 자리하기 시작했고, 오스만 제국 내 긴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 세가 성장했다. 이 시기에 서구와 오스만 기독교인들 간의 협력과 결탁 관계가 드러난다. 이러한 긴밀한 관계는 발칸반도와 아나톨리아의 전쟁과 독립 선언으로 인해 세가 약해진 오스만 제국에서 반기독교인 감정이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서구 열강의 등장뿐만 아니라 개신교 선교사들의 유입과 그들의 역할 역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서구의 선교사들은 출신국의 대(對)오스만 정책을 반영한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지만, 서구 열강의 후원을 등에 업고 오스만 정치와 사회에 영향을 끼쳤다. 그들은 오스만 신민들을 개신교로 개종시키는 데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신식 교육 제공자로는 성공했다. 19세기 말 미션 스쿨이 신식 학교의 대표주자로 떠오르면서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무슬림 학생들도 함께 교육을 받았는데, 무슬림 엘리트들은 학교 교육의 근대성에 대해 위화감과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저자는 서술한다.

무슬림과 기독교인 관계에 관해 한 가지 아쉬운 지점은 이 책에서 오스만 무슬림들과 기독교인들의 집단 내 다양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저자는 여러 차례 책에서 엘리트 기독교인 집단과 일반 기독교인들을 비교하면서 신분의 차이에 따라 무슬림 중심의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의 사회적 위치가 얼마나 달랐는지를 언급한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신분뿐만 아니라 인종이나 종족, 지역, 그리고 규모 등에 따라 그 영향력과 일상의 모습이 달랐을 것으로 추측된다. 물론 모든 기독교인 집단을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계층 이외의 차이점이 더 논의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저자가 주로 아나톨리아와 발칸반도에 집중했기에 저자가 언급한 기독교인 집단은 대부분 그리스나 아르메니안 동방정교회 소속이었을 것이나, 관련 논지에 관해 다른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처한 상황을 추가로 언급하자면, 레바논 지역에서는 19세기에 들어 정교회 기독교인들과 개신교도 간 갈등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개신교가 19세기 초반 까지도 오스만 제국 내에서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받지 못했던 상황에서, 따라서 밀레트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시기에, 한 마론파 정교회 교인 아사드 쉬드야끄(As'ad Shidyayq)가 개신교로 개종한 사건이 있었다(Makdisi, 2008a). 그는 개종을 발표한 후에 그가 전에 소속되었던 정교회 사회로

부터 괴롭힘과 고문, 박해를 당했으며 기독교 이름까지도 빼앗겼고, 마론파 교회 총대주교(patriarch)에게 “지옥의 왕”이라고까지 불리는 수모를 당했다(pp. 2-3). 이러한 상황으로 짐작건대, 비록 개신교 신자들의 수가 많지는 않았겠지만, 정교회 기독교인들은 무슬림 집단이 그들에게 갖는 배신감과 불만에 민감하게 반응했을 뿐만 아니라, 개신교도들 역시 그들과 대척점에 서 있는 집단으로 간주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의 집단 감정을 단일화할 수는 없고, 기독교 집단 내에서도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기독교 내 다양한 집단을 살펴보는 것은 저자가 책에서 몇 차례 언급한 사무엘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식의 단편적이고 성급한 단층선 긋기를 경계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는 오스만의 무슬림-기독교인 관계에서 열강의 권력을 관계 내부로 들여옴으로써, 문제는 단지 무슬림-기독교인 간 종교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격차 때문이기도 하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오스만 제국 말기 무슬림-기독교인 관계를 현대 중동이라는 무대로 옮겨보자. 최근 중동에서 일어난 굵직한 사건들은 종파주의⁹⁾ 갈등의 뇌관을 건드렸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입을 시작으로, 2010년 튀니지를 위시해 2011년 이웃 국가들로 급속도로 퍼진 ‘아랍의 봄기’(Arab Uprisings), 그리고 2014년 ISIS의 등장이 그러했다. 차례로 보자면 각각의 사건은 이라크의 순니-시아 무슬림 간 갈등을 증폭시켰고, ‘아랍의 봄기’로 인해 무너진 권위주의 정권들 이후에 기세등등하게 등장한 이슬람주의 세력은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예멘 등에서 비무슬림에 대한, 혹은 무슬림 종파 간, 갈등과 분쟁을 심화시켰다. 또한 ISIS는

9) 연구자들은 ‘종파주의’(sectarianism, 아랍어로 ta'ifiyya)라는 용어를 분명히 정의(definition) 내리지 않고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보통은 종교, 종족, 혹은 민족 집단 간 혐오의 문제나 정체성 정치(종교나 민족 정체성에 기반을 둔 집단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하는 정치 운동)를 의미한다(Haddad, 2017).

순니 무슬림 이외의 모든 다른 이슬람 종파와 비이슬람교도들, 사회적 소수자들을 망라하며 그들에게 잔인한 박해를 가했다. 이렇듯 최근 중동은 전에 없는 종파주의적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나는 다음의 질문에 맞닥뜨렸다. ‘20세기 초반 오스만 제국의 무슬림들과 기독교인들의 집단 감정은 오늘날 중동의 무슬람-기독교인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가? 혹은 ‘우리는 20세기 초반 무슬림들이 서구 혹은 중동 지역의 기독교인들에 대해 가졌던 깊은 트라우마가 오늘날 우리가 무슬림들로부터 목도하는 트라우마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집단 감정은 변하지 않고, 전 근대와 근대, 현대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가?’하는 질문이다.

저자는 책의 서론과 결론에서 현대 무슬람-기독교인 관계는 과거에 형성된 집단 감정 위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강조한다. 나는 그 주장에 동의하고, 현대의 집단 간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오스만 제국 시기의 비무슬림에 대한 통치방식과 그 시기의 집단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대 기독교인들의 처지에 대해 몇몇 연구자들은 이집트 기독교인들을 현대의 답미라고 규정하기도 하고, 내가 2014년, 카이로에서 이집트의 기독교인들과 심층 인터뷰하는 중에 여러 명의 기독교인은 자신들은 여전히 답미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기독교인들이 처한 현대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과연 시대의 경계를 얼마나 자유롭게 뛰어넘을 수 있는가 하는가이다. 오스만 제국 시기의 기독교인들과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동일하지 않다.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소수자의 위치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나 그때와 정치 시스템이 다르고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신민이 아닌 시민의 위치에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과연 기독교인들을 여전히 답미라고 부르는 것이 맞을까?

마끄디시를 다시 인용하자면, 중동 지역을 이해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이 종파주의가 이슬람의 시작부터 원래부터 항상 있었던 현상이라고

믿는 점이다. 즉, 이슬람이 태동한 7세기부터 종파주의가 등장했던 것은 아니다. 현대의 종파주의 문제는 이 시대에 중동이 경험하는 “현대의 정치 투쟁”으로 이해해야 하고(p. 560), 무슬림과 비무슬림을 둘러싼 다양한 행위자가 종파주의 문제에 개입하는 방식에 관해서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나는 비슷한 맥락에서 현대의 종파주의적 집단 감정을 오스만 시기의 그것에 기반을 두고 이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두 가지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얻었다. 글을 마무리하는 시점에도 나는 여전히 위의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고민하고 있기에 아마도 이 질문들을 열린 질문으로 남기고 글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지금 정리할 수 있는 생각을 나누자면, 나는 시대의 경계를 넘나들어 집단 감정을 동질의 것으로 상상하는 것은 이들 종교 집단들이 처한 상황을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요약하자면, 현대의 종교 집단 간 갈등을 이해하기 위해 오스만 제국 시기의 집단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고 매우 유용하지만, 그 시기의 집단 감정을 현대의 그것과 동일시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현대 중동에서 종파주의적 갈등은 위에 언급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20세기 초반의 그것보다 다층적으로 심화하였다. 특히 이집트와 시리아, 이라크 등에서는 이슬람주의자 집단들의 등장과 이들과 국가 간 갈등으로 기독교 집단들은 전에 없던 위협에 놓여있다.

4. 맺음말

중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은 연구자 스스로 그들의 인식에 대해 성찰하고, 학생들을 인식론적 접근으로 그들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입견에 도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종파주의, 또는 종교 집

단 간 혐오와 갈등 문제가 중동 지역만이 가진 특수한 사회적 특성으로 이해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Makdisi, 2008b). 무슬림-기독교인 갈등과 같이 종교 집단 간 갈등과 반목은 어느 지역에서나 발견되는 현상으로, 예컨대 인도의 힌두교도-무슬림 간 분쟁이라던가 북아일랜드에서 일어난 가톨릭-개신교도들 간의 전쟁과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갈등 역시 아시아와 유럽에서 일어나는 종파주의 문제이다. 유럽과 북미에서 특히 백인 대 흑인 간 발생하는 인종 문제 역시 종교, 종족 간 갈등과 비슷한 맥락에서 일어나는 사회 불평등의 문제이다.

마끄디시의 이러한 문제 제기는 저자의 주장과도 상통하는데, 맺음말에서 저자는 1960년대 미국에서 흑인해방 문제에 천착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말을 인용하며, 인종적, 종교적 차이를 뛰어넘어 평화로운 공존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 책을 마친다. 중동이 사회 갈등 문제에 있어서 특수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인식론적 전환을 주문하는 것이다.

책의 구성에 있어 각 장의 끝에 ‘더 살펴보기’라는 부록 형식의 글을 삽입한 것은 각 장에서 중요한 주제를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개론서의 목적에 걸맞게 책의 말미에 ‘더 읽을거리’라는 제목으로 덧붙인 관련 연구목록은 관련 분야 연구자들이 관련 연구를 찾아 헤매지 않고, 길잡이 역할을 해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어와 영어, 터키어 등 풍부하고 상세한 자료를 바탕으로 마지막 장까지 심도 있는 분석을 보여준 저자의 열정과 끈기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오스만 제국의 초창기부터 제국이 멸망에 이르기까지 900여 년의 역사를 무슬림과 비무슬림 간 관계라는 관점으로 조망하고 분석한다. 이 책은 수많은 정치적, 사회적 사건들을 다루지만, 저자의 흥미로운 문제 제기로 시작해서 그 의문이 해소되는 구조로 전개가 되다는 점에서, 이 모든 과정을 따라가며 서평을 쓰는 것은 나에게 매우 즐거운 작업이었다. 이 책은 한국어를 읽을 수 있는 독자들에게 오스만 제국

사를 종교 집단 간 관계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개론서이자 학부 강의에서 교과서로 매우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강의실에서, 연구실에서, 혹은 다양한 장소에서 이 책을 마주하게 될 독자들 역시 그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는 바이다.

참고문헌

【논 저】

- 구기연(2017), 『이란 도시 젊음이, 그들만의 세상 만들기』,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이은정(2011), 「고전시대 이후(17-19세기) 예니체리의 정체성 문제 — 출신, 영성, 네트워크」, 인문논총 제75권 제4호, pp.51-84.
- 이은정(2015), 「17세기 이스탄불에서 기독교인 이주의 영향」, 역사학보 226, pp. 467-510.
- 칼레드 파흐미(2016), 『메흐메드 알리: 오스만 제국의 지방 총독에서 이집트의 통치자로』, 이은정 역, 일조각.
- 이은정(2016), 「19세기 후반 오스만 제국에서 무슬림 집단 감정의 부상: 1850년대에서 1880년대까지를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136, pp. 89-128.
- Abu-Lughod, L. (2015), *Do Muslim Women Need Saving?*, Harvard University Press.
- Brown, J. A. (2014), “‘Our National Feeling Is a Broken One’: Civic Emotion and the Holocaust in German Citizenship Education”, *Qualitative Sociology* 37: 425-42, <https://doi.org/10.1007/s11133-014-9286-8>.
- Brubaker, R. (2004), *Ethnicity without Groups*, Harvard University Press.
- Collins, R. (2004), *Interaction Ritual Chai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eertz, C. (1973)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Basic Books.
- Ha, H. J. (2017), “Emotions of the Weak: Violence and Ethnic Boundaries among Coptic Christians in Egypt”, *Ethnic and Racial Studies* 40 (1): 133-51, <https://doi.org/10.1080/01419870.2016.1201586>.
- Haddad, F. (2017), “‘Sectarianism’ and Its Discontents in the Study of the Middle East”, *The Middle East Journal* 71 (3): 363-82, <https://doi.org/10.3751/71.3.12>.
- Hirschkind, C. (2006), *The Ethical Soundscape: Cassette Sermons and Islamic Counterpublics*, Columbia University Press.

- Hochschild, A. R. (1983), *The Managed Heart: Commercialization of Human Feeling*,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ahmood, S. (2005), *The Politics of Piety: The Islamic Revival and the Feminist Subject*,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akdisi, U. (2008), *Artillery of Heaven: American Missionaries and the Failed Conversion of the Middle East*, Cornell University Press.
- _____ (2008b), “Moving Beyond Orientalist Fantasy, Sectarian Polemic, and Nationalist Denial”, *International Journal of Middle East Studies* 40 (04): 559, <https://doi.org/10.1017/S0020743808081488>.
- Wingfield, A. H. (2010), “Are Some Emotions Marked ‘Whites Only’? Racialized Feeling Rules in Professional Workplaces”, *Social Problems* 57 (2): 251-68, <https://doi.org/10.1525/sp.2010.57.2.251>.

